

教授스타일과 국민학교 음악수업에 적용된 教授法 模型

金 慶 熙

목 차

I. 들어가는 말	IV. 4 MAT System
II. 스타일의 개념	V. 음악수업에 적용된 4 MAT System
III. 가르치는 스타일	VI.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교육계에서의 중요한 연구분야 중 하나는 教授 혹은 가르치는 스타일 (teaching style)과 學習 혹은 배우는 스타일 (learning style)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스타일은 교육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배우는 스타일은 교육받는 자와 교육하는 자, 둘 다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질 수 있다. 학생의 배우는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개개 학생의 필요에 좀더 민감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주로 학교 교육의 기본과목인 과학, 수학, 언어등의 수업과정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가르치는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교사의 특정 행위 혹은 특정 성향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류였으나,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교육계에 정착되고 교육 방법론이나 전략등의 개념과 구분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어떤 교사를 막론하고 자신의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른 교사와는 다름을 막연이나마 감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치는 스타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나타난다: 특정 교육목표 강조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수업계획 (유동적, 불변적), 수업중점 (기술습득, 사실암기, 개념형성; 결과중시, 지적향상, 새로운 생각), 수업운영양식 (교사중심, 학생중심), 가르치는 방법 (강의, 토론, 그룹활동),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반응양식 (협조적, 비협조적; 직접적, 간접적), 선호하는 질문양식 (단답형의 옳고 그름이 분명한 질문, 가치판단을 요하는 질문, 사고과정을 중시하는 질문), 교실 분위기 (자유, 엄격), 평가 (시험, 과제물, 프로젝트), 교사 행동 양식, 교실내의 적합한 행위 등.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가르치는 스타일과 배우는 스타일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목들의 연구결과를 음악교육에 일반화하거나 혹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에서는 인지적, 심동적, 기술적 면 (가창, 연주등의 표현능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므로, 이러한 세 영역에서의 개인적 능력차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세 영역을 통합시키는 능력 역시 현저한 개인차를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르치는 스타일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르치는 스타일 모형 중 하나인 4 MAT System을 음악수업에 연결, 조명해 봄으로써, 향후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교사와 학생 스타일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 II장과 제 III장에서는 스타일의 개념과 가르치는 스타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각각 살펴보고, 제 IV장과 제 V장에서 4 MAT System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4 MAT의 4가지 가르치는 스타일이 음악수업에 적용된 예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 VI장은 가르치는 스타일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져오는 몇가지 잇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II. 스타일의 개념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업전략이란 개념에 비해 포괄적이며 다원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스타일이란 개인이 선호하는 행동양식의 복잡한 세트로서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반면 수업전략이란 가르치는 특정 테크닉으로서, 역할 담당, 강의, 모의상황 설정 (simulation)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스타일이란 전략

을 그 한 부분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전략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부분들(전략)의 합보다 질적, 양적으로 폭넓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어보자. 교사는 특정 교과내용이나 학습상황에 따라 특정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이 특정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는 나날의 중점되는 교육활동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전략이나 테크닉을 바꾼다. 반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한정된 가치의 세트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Ornstein (1991)은 “가르치는 양식은 교사의 교육적 행동양식과 태도로 나타나는 교사의 성격과 교육철학의 합성체”라고 정의했다. 즉 가르치는 양식이라는 개념은 수업 방법론상의 전략적 선택 뿐만 아니라 교사의 내면적 특질과 가치관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어떠한 교육적 행동이나 방법론도 개개 교사의 성격과 교육철학, 교육목표등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는 교실에서 어색함을 느낄 것이고, 학생들은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하여, 이는 효율적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일은 선천적과 후천적 요소 모두를 함유하고 있다. 스타일의 한 부분인 교사의 성격이나 인지적 성향 (cognitive style)등이 선천적 면이라 한다면, 이전의 가르쳤던 경험과 배웠던 경험들을 통해 구성된 스타일의 측면은 후천적이라 할 수 있다.

스타일은 또한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인간은 바깥세계 (외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행동유형을 유지하므로 개인의 스타일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유형은 종전의 경험과 현저하게 다른 인생 경험이 그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동패턴을 재조직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려우며, 이러한 안정성은 다시 기존의 패턴들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뿐만 아니라 먼저 고정화된 행동양식은 후의 것들에 비해 그 자동화 (automatization)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언어 습득을 보자. 십대 이후 제 2국어를 배우는 사람 중 극소수만이 제 1국어를 구사하는 만큼의 능숙도를 제 2국어 사용에서도 보여준다. 즉 이전의 기본 언어들은 후속되는 배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교육에서 스타일이라는 개념도 개개 교사나 학생에 있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변화는 가능하나 가지고 있는 스타일 만큼의 자동화 혹은 자연스러움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는, 다양한 수업전략의 활용을

나름대로의 틀 안에서 의미있게 조직화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비록 고유 스타일의 자동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자신과 다른 스타일의 부분들 (즉 자신의 스타일이 비교적 적게,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면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보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II. 가르치는 스타일

Kuchinskas (1979)는 1년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을 관찰하고 면담한 후에 결론내리기를 교사의 스타일이야말로 교실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라고 했다. 그와 비슷한 의견을 펴는 Cornett (1983)은 교사 스타일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그 이유로 교사의 스타일은 학생들의 배우는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Beller (1981)는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발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배우는 스타일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전자의 우위를 부인할 수 없다.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학습상황 자체가 개개 학생의 배우는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과내용을 정하고 전개한다기 보다는 특정 교사의 일률적인 가르치는 스타일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배우는 스타일이 교사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흔히 교사의 가르치는 스타일에 적응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성향과 달리하는, 심지어는 반대되는 학습전략을 채택할 때도 있다. 특히 학생 자신이 특정 학습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대되는 교육결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학생은 그 전략이 자신의 배우는 스타일과 대치되더라도 그것을 택한다. 예를 들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교의 영어교육방법을 보자. 언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할 수도 있고, 문법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둔 작위적 학습(studial learning)을 할 수도 있다. 학생인구 중 일부는 경험적 학습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작위적 학습법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교육체제 내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이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모든 학

생은 작위적 학습법으로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교육의 효과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음악수업 내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가르치는 스타일이 존재하고, 각각은 어떤식으로 표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실로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가르치는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3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1) 교사의 배우는 스타일과 가르치는 스타일 간의 관계, 2) 교사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학생의 배우는 스타일 사이의 일치 혹은 불일치, 3) 가르치는 스타일 제 유형. 첫번째 분야, 즉 교사의 배우는 스타일이 본인의 가르치는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두 스타일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혹은 빈번히 사용하는 학습 스타일의 특징들을 가르칠 때에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 책을 통해 이론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교사는 비슷한 교육 매개체나 중점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직접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지각을 통해 배우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두번째 분야인 교사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학생의 배우는 스타일 사이의 일치/불일치에 관한 주제는 가르치는 스타일과 배우는 스타일이 일치되었을때 교육효과가 높은지, 혹은 불일치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유행하였던 주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Dunn (1984)과 Gregorc (1984)는 스타일 일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성취 데이터를 보고한 반면, 다른 연구결과들은 일치의 잇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Cotterell (1982)은 가르치는 스타일과 배우는 스타일의 일치에 관한 과거 10년간의 연구를 검토한 후 보고하기를 스타일 일치의 일치는 학생의 태도나 정서면에는 확실한 영향을 끼쳤으나 성취도 향상면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냈다고 했다. Grasha (1984)는 한결음 더 나아가 개개 학생은 교육현장에서 스타일의 불일치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지적능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의 소견으로서는 스타일의 일치는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효과적 교육결과를 낼 수 있는 반면,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일상의 불일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통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유사한 교수스타일이 사용된다면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이는 자칫 저조하가 쉬운 학습 흥미

도를 보완하여 학생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반면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다양한 교수스타일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스타일과의 갈등에서 벗어지는 교육적 도전 (educational challenge)를 통해 배우는 스타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세번째로 가르치는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건 분류해 보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학자들은 여러 다른 종류의 교수스타일 모형들을 고안해 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Herman Witkin의 field-dependence vs. field-independence, David Kolb의 convergent, divergent, assimilator, accommodator, Bernice McCarthy의 4 MAT System, Anthony Gregorc의 concrete-sequential, abstract-sequential, abstract-random, concrete-random, Carl Jung의 Extraverted vs. Introverted, Sensing vs. Intuitive, Thinking vs. Feeling, Judging vs. Perceiving 유형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교육의 효과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음악수업 내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가르치는 스타일이 존재하고, 각각은 어떤식으로 표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주장에서는 McCarthy의 4 MAT System을 살펴보고, 그것을 음악수업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다.

IV. 4 MAT System

McCarthy는 상기한 Kolb의 4가지 스타일 구분과 뇌의 좌반구, 우반구 작용이론을 합성하여 4 MAT System (1980)을 만들었다. 4 MAT은 가르치는 스타일, 배우는 스타일 각각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나아가 시스템을 통해 순차적인 학습발달 단계도 설명한다 (구체적 경험, 숙고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이며 활발한 실험으로 진행함). 우선 McCarthy의 4 스타일의 기본전제를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개인의 스타일은 외부로부터의 경험과 정보를 지각 혹은 인식하는 방식과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 인식방식은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의 과정으로 나뉘며, 개인의 특정 인식방식은 이 양극의 연속체상에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정보 처리양식도 적극적 실험과 숙고적 관찰사이의 연속체로 구성되어, 개인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양식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한편 좌반구, 우반구 이론은 뇌의 양반구가 정보 입력과정상 상반되는 전문성을 띤다는 점에 근거한다. (도표 1 참조).

<도표1> 좌반구, 우반구의 특성

좌반구	분석적	언어적	추상적	시간적	상징적	논리적	제수적	이론적
우반구	총체적	비언어적	구체적	공간적	비상징적	직관적	유추적	심미적/ 창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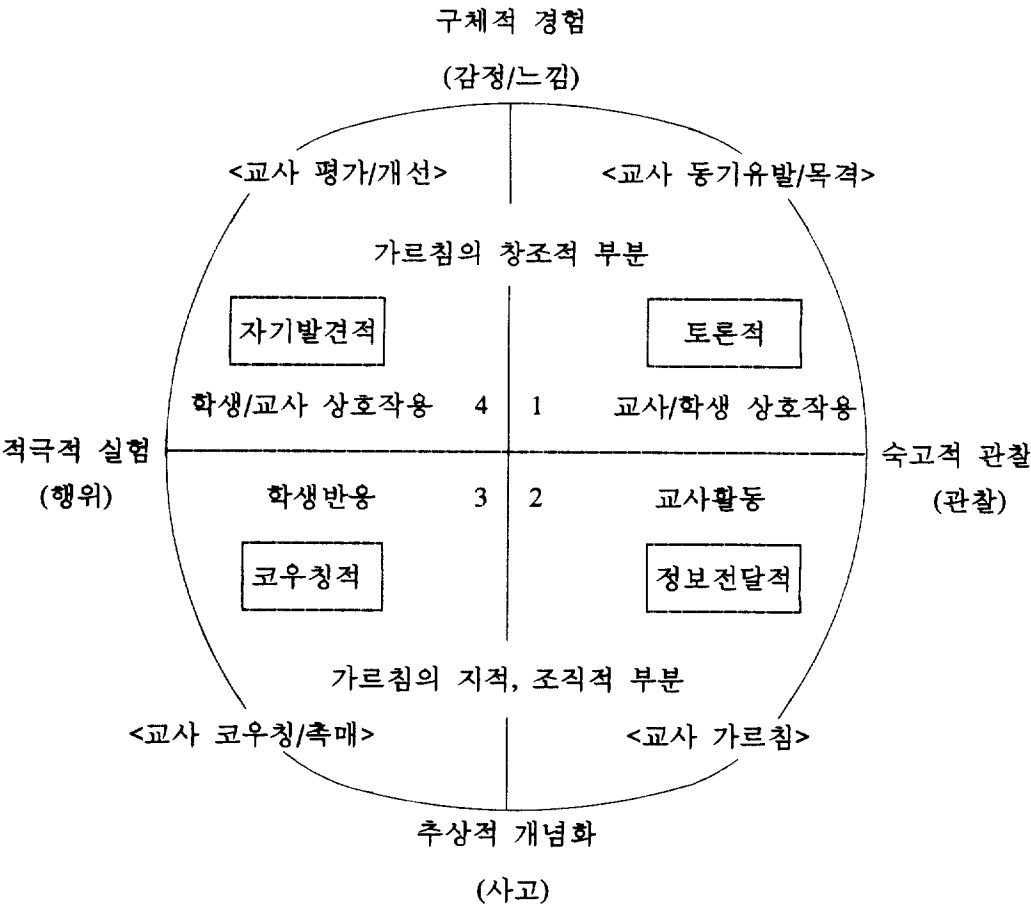
* 창조적/심미적 기능은 음악, 미술, 스포츠, 무용등에 관련된 것을 지칭함.

모든 인간은 상대적으로 양쪽의 뇌반구 기능상 균형의 차이를 보인다. 즉 개인에 따라 양반구의 상대적 발달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음악인들 중에서도 좌반구가 보다 발달한 이들은 테크닉이나 정확성 또는 세밀한 표현에 치중하는 반면, 우반구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이들은 음색이나 표현상 문제에 더 관심을 둔다. 사실 좌반구, 우반구의 두 종류 정보 입력과정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우기 창조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고는 양반구의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학교 교육은 좌반구 발달에 치중하고 있다.

McCarthy의 4 스타일은 첫째, 상상력이 풍부한 스타일 (imaginative style)로서 개인적 의미 추구형 (Type 1), 둘째, 분석적 스타일 (analytic style)로서 지적 이해 추구형 (Type 2), 셋째, 상식적 스타일 (commonsense style)로서 문제해결 추구형 (Type 3), 넷째, 역동적 스타일 (dynamic style)로서 숨겨진 가능성 추구형 (Type 4)으로 각각 구분된다. Type 1의 상상력이 풍부한 스타일의 교사는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여 지식을 개인의 직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주로 모의상황 (simulation)을 조성하거나 토론등을 통해 학생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룹활동과 협동적 노력을 도모시킨다. Type 2의 분석적 교사는 지식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둬서 흔히 우수한 학생을 격려하고, 세부적 사항, 사실적인 내용, 귀추적인 사고 (혹은 전후관련적인 사고, sequential thinking)등을 중시한다. 이 유형의 교사는 가끔 창조력을 억제하는 압도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Type 3의 상식적 스타일의

교사는 유능성에 초점을 두며 아이디어의 현실적 적용에 가치를 부여한다. 기술적 능력향상이나 직접적 경험을 중시하고, 교사 자신은 코우치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독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Type 4의 역동적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교과내용이 편성되며, 교사는 보통 다양한 수업방법을 이용하고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도표 2 참조).

<도표 2> 4 MAT에서의 교사의 역할



이러한 일반적 교수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음악교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상상력이 풍부한 스타일의 교사는 개인적 의미부여에 가치를 둬므로 음악감상, 학생의 긍정적 태도 양상, 자기평가등에 중점을 두는 수업을 할 것이다. 반면 분석적 스타일의 교사는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 자연히 음악이론이나 연주등에 많은 수업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상식적 교수스타일을 가진 교사는 활용가치에 비중을 둬므로, 기능적 능력 즉 가창이나 연주 중에서도 반주, 지휘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다른면보다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교사는 창조력과 연관된 음악교육의 해석적인면이나 즉흥적인면(즉흥연주, 즉흥작곡 등)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V. 음악수업에 적용된 4 MAT System

다음은 일반적인 교수스타일의 차이를 음악수업에 적용시켜 특정 교육 목표를 고려할 때 나타날 4가지 다른 교수스타일의 양상을 보여주는 예이다(R. Diagle의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목표는 다른 종류의 음가(., ♩, ♪, ♫)와 4/4 박자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수업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생들로 가정한다.

Type 1 - 상상력이 풍부한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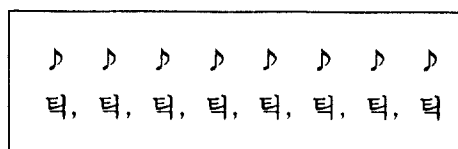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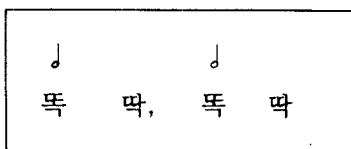
우반구 ... 청각적, 운동적 감각에 바탕을 둔 활동을 통해 음가를 경험한다.

- 1) 교사 : 크기가 같은 각각의 음표(., ♩, ♪, ♫)에 해당하는 카드를 준비한다. 각음표 아래에는 그 음가에 해당하는 음절을 적는다.

예)

。			
따	르	르	룽

♪	♪	♪	♪
딩,	딩,	딩,	딩



2) 교사 : 학생들에게 각 카드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상응하는 음절과 몸동작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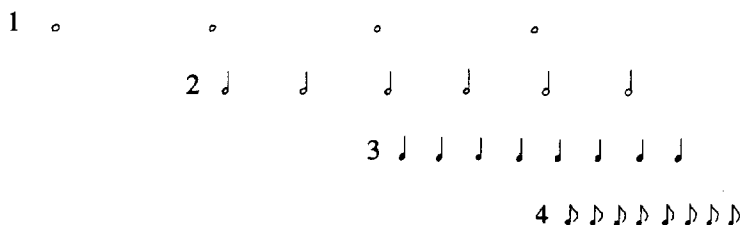
- 예) ♩ : (따) 양팔 안으로 굽혀 어깨를 치고,
 (르) 양팔 펴서 머리 위로,
 (르) 양팔 어깨 높이로 밖으로 펴고,
 (룽) 양팔 내려 몸통에 붙임
 ♩ : (똑) 양팔 가슴 높이로 앞으로 폈다가,
 (딱) 안으로 굽혀 어깨침
 ♩ : (딩) 손뼉치기
 ♩ : (틱) 무릎치기

3) 교사 : 기본박을 작은북으로 치면서 카드를 하나씩 제시한다.

학생 : 학급 전체가 몸동작과 함께 해당하는 음절을 말한다.

4) 교사 : 학급을 넷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각 노트를 대표하도록 한다.

학생 : 교사의 기본박 연주에 맞추어 첫번째 그룹 (온음표)이 시작하면, 두번째 그룹 (이분음표)이 4박 후 뒤를 잇고, 세번째 그룹 (사분음표)이 다음 4박후 앞의 두 그룹에 합류하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그룹 (팔분음표)이 참가한다.



5) 역할과 순서를 바꾸어 해본다.

예) 1 2 3 4 , 1 2 3 4 , 1 2 3 4
♪ ♪ ♫ 。 ♪ ♫ 。 ♪ ♫ 。 ♪ ♪

좌반구 ... 방금 마친 경험을 검토 분석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파르르릉은 몇박이었나?” (4)

“그 박들 중 액센트가 있었던 것은 몇개였나?” (1)

“같은 시간동안 ‘똑딱’은 몇번 말했나?” (2)

“‘딩딩’은 다른 패턴들과 비교해 볼때 속도상 무엇과 같았나?”

(교사가 연주한 작은북 박, 기본박)

“‘틱틱’을 할 때는 몇번이나 무릎을 쳤나?” (8)

“어떤 음절을 가진 카드가 가장 느리게 움직였나?” (파르르릉)

“어떤 음절을 가진 카드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나?” (틱틱)

“어떤 카드가 기본박을 나타냈나?” (딩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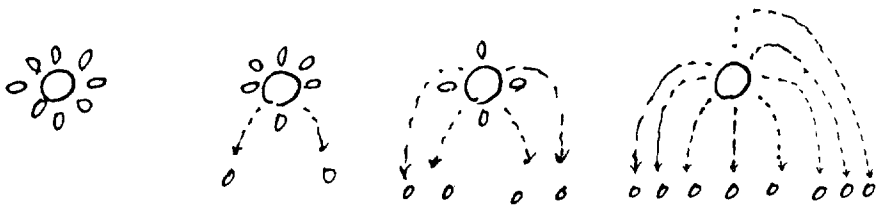
Type 2 - 분석적 교사

우반구 ... 개념과 영상을 통합한다.

1) 교사 : 학생들에게 꽃잎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지어내
도록 유도

학생 : 예) 바람부는 날, 가을 낙엽

2) 교사 : 그림으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꽃 한송이가 꽃잎
숫자가 다른 여러 그룹 (2, 4, 8)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과
8개의 꽃잎이 꽃 한송이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좌반구 ... 학습된 경험을 발전시켜 음표 기보에 적용한다.

1) 교사 : 미터기호 설명 (위의 숫자는 한 마디에 몇개의 박이 있는지, 아래 숫자는 어떤 종류의 음표가 한 박자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냄).

2) 학생 : 제시된 예에 알맞은 음표를 채워넣는다.

예)

“이 마디에는 몇박이 있어야 하나?(4)



“이 마디에는 몇박이 있나?” (3)

“어떤 종류의 음표를 사용하면 빠진 박을 채워넣을수 있나?”

Type 3 - 상식적 교사

좌반구 ... 정의된 개념을 가지고 학습한다.

1) 교사 : 칠판에 몇개의 4/4박자에 관련된 문제풀이 예를 제시한다.

학생 : 4/4박자 마디를 만들기 위한 알맞은 음가를 사용하여 빈 칸을 채운다.

예)

$$\begin{array}{rcl}
 \frac{1}{4} & + & \frac{1}{4} = \\
 \frac{1}{8} & + & \frac{1}{8} = \\
 \frac{1}{16} & + & \frac{1}{16} = \\
 \frac{1}{32} & + & \frac{1}{32} =
 \end{array}$$

2) 교사 : 4/4박자 한 마디에 해당하는 여러 다양한 리듬패턴의 예를 박수친다.

학생 : 들은 패턴을 기보한다.

우반구 ... 자신의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

학생 : 4/4박자의 리듬 패턴을 만들어 본다.
가사를 붙여본다.

Type 4 - 역동적 교사

좌반구 ... 유용성, 창의성, 미래 학습으로의 디딤돌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적용한 개념을 분석한다.

학생 : 온음표, 이분음표, 사분음표, 팔분음표등을 사용하여 4/4박자의 8마디 리듬패턴을 작곡하고 이를 기보한다.
가사를 붙여본다.

우반구 ... 학생 스스로 직접 창작하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학생 : 한 학생이 작곡한 것을 다른 학생이 연주한다 (손뼉, 타악기 사용)토론하고 평가한다.

* 다음 단계로 가락개념을 리듬작곡에 추가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논의한 스타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는 음악수업에 있어 몇가지 실질적 잇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사와 학생간의 스타일 차이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오판을 줄일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노력부족’ 혹은 ‘능력부족’의 일부는 실상 교사와 학생간의 스타일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 둘째, 교실내에서 상반되는 스타일 공존시 나타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상반되는 스타일이 공존할 때 개인은 자신과 반대되는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예를 들어 열등하다고 생각)이 있다. 이러한 상대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교사와 학생간의, 또한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발전되면 학생은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 급기야는 자신감 상실, 동기유발 저해를 야기시키는 직접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교사 자신의 교수스타일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본인 스타일의 강점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니지 못한 혹은 적게 활용하는 스타일들을 의도적으로 개발하여 가르치는 스타일상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교수스타일의 효율성은 특정 학습환경과 학습자,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조건들이 지속된다면 어떤 특정 스타일이 다른것에 비해 좀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실상 이는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가르치는 스타일의 영역확장은 필수불가결하다. 넷째, 다양한 스타일에 관한 이해는 각 교사의 특별한 스타일을 상호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섯째, 여러 가르치는 스타일의 구현은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학습양식에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강조한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다양한 스타일로의 영역확장의 중요성은 McCarthy (1981)의 다음과 같은 말을 빌어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모순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나, 우리는 자신의 배우는 [가르치는] 양식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때 [편안하게 느낄 때], [또]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성공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배우는 [가르치는] 양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우리는 다른 스타일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Cornett, C. E. What you should know about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1983.
- Cotterell, John L. "Matching teaching to learners: A review of a decade of research," Psychology in the Schools, 19 (1982), p. 106-12.
- Dunn, Rita. "Learning style: State of the science," Theory into Practice, 23 (1984), p. 10-19.
- Grasha, Anthony F. "Learning styles: The journey from Greenwich observatory (1796) to the college classroom (1984)," Improving College and University Teaching, 36 (1984), p. 46-53.
- Gregorc, Anthony F. "Style as a sympt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ory into Practice, 23 (1984), p. 19-26.
- Kuchinskas, Gloria. "Whose cognitive style makes the difference?," Educational Leadership, 36 (1979), p. 269-71.
- McCarthy, Bernice. The 4 MAT System: Teaching to learning styles with right/left mode techniques. Barrington, IL: Excel, 1987.
- Ornstein, Allan C. "Teacher effectiveness resear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Effective teaching: Current research. Edited by Waxman & Walberg. Berkeley: McCutchan, 1991, p. 63-80.

<ABSTRACT>

Teaching Style and 4 MAT System as Applied to the Elementary School Music

Kyung hee Kim

A major research achievement in education has been the ability to identify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To improve the instructional process, research efforts in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began with investigations in the basic school subjects, e.g., mathematics, English, and science. To date, however, little comparable research has been attempted in music. Since teaching style may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obtaining maximum educational outcomes in a music classroom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instructional process specifically focusing on teaching sty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style in education, to review the related research on teaching style, to introduce McCarthy's 4 MAT System as an example of teaching style model, and to apply 4 MAT to the elementary school music.

Style is characterized by its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nature as compared to teaching strategies, methodology, and techniques. Style also involves both innate and acquired aspects and tends to be fairly fixed. The research on teaching style addresses three broad iss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styles and learning styles of teachers, matching and mismatching of teaching styles with learning styles of students, and teaching style models.

McCarthy's 4 MAT System is devised by integrating Kolb's model of 4 types with the right and left hemispheric theory. The derived 4 styles are imaginative, analytic, commonsense, and dynamic types. This classification of 4 types has been applied to the different teaching of note values and meter in the elementary general music lesson. Several implications from a true understanding of music teaching styles concludes the paper.